“여성이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오해”

美 인문학 연구원,
고대 중국 여성 불자들의 삶 연구

여성은 깨달을 수 없단 근거로
고대 불교, 여성 불교참여 제한
“깨달으려면 남성으로 태어나야”

BUT 여성이기 때문이 아닌
가부장제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인문학 연구원인 스테파니 볼크 빌은 4~6세기 중국의 여성들, 특히 불자 여성들의 삶을 깊이있게 연구했다. 사진출처=USC News

중국 고대 불교 경전을 통해 당시 불교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인문학 연구원인 스테파니 볼크 빌은 4~6세기 중국의 여성들, 특히 불자 여성들의 삶을 깊이있게 연구했다.

“고대 불교 사회에서는 단지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교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래됐을 때, 중국 불교계는 이전에는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던 사회 · 종교적 실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중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는 점이 흥미로워 불교 여성들의 삶을 깊이있게 연구했습니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여성은 자식을 낳아야 하는 몸이기 때문에 윤회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겨졌다. 그래서 여러 생을 반복해 남성으로 태어나야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볼크 빌은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는 데는 성별의 차이가 없다고 가르쳤다. 여성의 신체적인 한계 대신 가부장적 사회제도에 대해 언급했다”며 “이는 당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굉장한 변화를 주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5세기 중국 경전에서도 발견된다”고 말했다.

볼크 빌 연구원은 맥마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중국 5세기에 쓰인 불교 경전을 확인하고 당시 중국의 불교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비춰졌는지 밝히는 연구를 했다.

볼크 빌 연구원에 따르면 5세기 지위를 갖고 있던 중국 불자 여성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 정치적 상황을 협상하기 위한 장소로 불교 사찰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이 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경전에 많은 후원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볼크 빌은 몇몇 글들에서 발견되는 궁중 여성들을 언급했다.

경전에서는 여성이 성(性)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여성의 몸이라서 깨닫기 힘든 것이 아닌, 가부장적인 사회로 핍박받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수행법도 담고 있다.

특히 5세기 중국의 궁궐 여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왕궁에서 태어난 여성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일생동안 그녀는 가족을 섬기는 하녀와 마찬가지로, 가장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며 몸종과 같이 보내야 한다. 그러면서 온갖 매질과 칼에 희생되기도, 악한 소문들에 의해 더럽혀지기도 하지만 그 고통은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의 몸을 던지고 벗어나야 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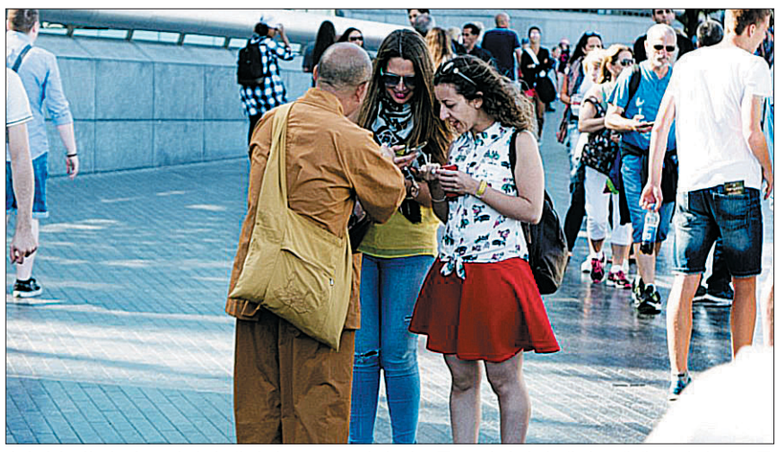
볼크 빌은 “궁궐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진귀한 보석들을 사찰에 기증하고 활동할 정도로 부유했지만 가부장적인 사회로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연구하는 5세기 중국 불교 경전에서는 여성의 권리와 신체에 대한 다양한 대화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다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담겨있다.

이어 그는 “당시 여성 불자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경전 속에서 여성 불자들이 스승에게 질문 하는 내용 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형 객원기자

英서도 가짜승려 기승… 고가 염주 강매 ‘눈살’



‘가짜승려’가 영국 런던과 애버딘 등 주요 관광 명소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고가의 염주를 강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출처= the SUN

스님 행세를 하며 행인들에게 고가의 염주를 강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자 영국 더썬(the SUN)지에 따르면 영국 런던과 애버딘 등 주요 관광 명소를 돌아다니며 행인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출처 불명의 팔찌와 금으로 장식된 작은 부적을 10파운드(한화 약 1만 5천원)에 요구하고 있는 것.

영국 애버딘의 한 호텔에서 근무 중인 로즈메리 크리머는 ‘가짜 스님’으로부터 강매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SNS를 통해 조심할 것을 경고했다.

가짜 스님은 당시 작은 수첩을 크리머에게 건네면서 그녀의 이름과 기부금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크리머는 스님이 건네는 팔찌와 부적을 받으면서 10파운드를 건넸다.

크리머는 “호텔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도중 스님이 내게로 다가왔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를 향해 와 말을 걸어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며 “그 스님은 나에게 와서 검은 팔찌와 ‘원만회향, 항상 평화로운 삶(Work Smoothly, Life Time Peace)’이라고 쓰인 금박 부적을 주면서 ‘당신에게는 행복한 기운이 있습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리머는 “정말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는 내가 돈을 줄때까지 놔주지 않았다”며 “온라인에서 이런 가짜승려가 기승을 부린다는 기사를 접하고서야 내가 그 피해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가짜 스님’은 뉴욕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라인파크와 센트럴파크 등 뉴욕시 주요 관광 명소를 돌아다니며 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출처 불명의 플라스틱 팔찌를 주는 대가로 5~20달러의 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

한 관광객은 “플라스틱 팔찌를 건넨 뒤 다짜고짜 5달러를 요구했다”며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스트에 따르면 범인들은 플러싱에 거주하는 중국계로, 관광객들로부터 강탈한 돈으로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형 객원기자

불자 리차드 기어, 신작에선 유대인役 맡아

영화 ‘오펜하이머 스트레트지’서 노만 오펜하이머 역 열연



사진출처=페이지 식스

독실한 불교로 알려진 세계적인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Richard Gere · 사진)가 새 영화에서는 유대인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끈다.

리차드 기어는 ‘불교 외교관’이란 별명을 얻을 만큼 세계 각지를 다니며 불교를 홍포해왔다. 2011년 방한 당시엔 서울 조계사와 진관사 등을 방문하며 한국 불교에 대해 배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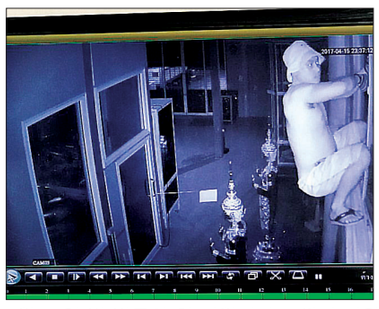
페이지식스(Page Six)는 불자 리차드 기어가 새 영화에서 유대인 역할을 맡았다고 4월 17일 보도했다. 4월 14일 미국서 개봉된 영화 ‘오펜하이머 스트레트지’에서 맡은 노만 오펜하이머 역이다. 평범한 유대인 사업가가 이스라엘 출신의 젊은 정치인 미샤 에셔를 만나며 겪는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를 다룬다.

“내 역할은 ‘hondlerd 유대인’에 속합니다. ‘hondlerd’란 뉴욕 거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 또는 정치계 수완가입니다.”

리차드 기어는 “대본을 읽자마자 난 매료됐다. 놀랄 만큼 환상적이었다”면서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햄릿〉에 등장하는 왕의 궁정 신하들로 햄릿의 옛 친구)이 햄릿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해낸 것처럼 노만 오펜하이머 역도 내게 꼭 맞았다”고 말했다.

‘오펜하이머 스트레트지’엔 스티브 부세미도 출연한다. 스티브 부세미는 랍비(유대교의 율법교사) 역할을 맡았다. 스티브 부세미는 “유대인 친구에게 조언을 얻어 랍비에 대해 연구했다. (내가 느낀 것은)랍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것”이라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4월 15일 밤 방콕의 한 사원에서 불쌍에 끼워진 보석 반지 3개를 훔쳐 달아난 남성이 사원 CCTV에 찍혀 경찰이 수배 중이다. 사진출처=카오소드

불상 반지 훔친 절도범, CCTV에 찍혀

방콕 한 사원서 반지 3개 훔쳐 달아나

4월 15일 밤 방콕의 한 사원에서 불상에 끼워져 있던 보석 반지 3개를 훔쳐 달아난 남성을 방콕 경찰이 찾고 있다고 태국 언론 카오소드가 16일 보도했다.

왓 번스리 매니콘 사원의 주지 프라마하 카논 쿠사라치토 스님은 자정 무렵 도둑이 침입, 불상을 보호한 유리 장벽을 깨부수고 불상에 끼워진 반지 3개를 훔쳐 도망갔다고 전했다. 반지는 2개의 루비와 사파이어로 장식된 것으로 약 20만 바트(한화 약 670만원)에 달한다.

카논 쿠사라치토 스님은 “그 불상과 보석 장식의 복장을 위해 보시금 약 300만 바트(한화 약 1억 원)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수배 중이다. 스님에 따르면 범인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지난 1월 사원을 방문해 이곳저곳을 정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님은 “도둑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 절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아름 기자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돼지감자,연근 국내산 100%
자연 그대로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위해 사찰에서 직접 재배한 돼지감자와 연근을 드시기 좋도록 자연그대로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어 담았습니다.



돼지감자 분말
한박스 44봉 7만원
◆효능 : 당뇨, 변비, 췌장 기능 강화,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 해열, 지혈에 탁월한 효과



연근 분말
한박스 44봉 9만원
◆효능 : 고혈압, 빈혈 예방, 피부미용, 위벽보호, 변비예방,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니코틴 제거에 탁월한 효과

음용 방법 보통 물 한 컵에 한봉지를 넣고 잘 저어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우유, 요구르트 등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금강식품(금강정사) 대리점모집 中
경남 양산시 대동 2길 24 (어곡동)
기업은행 055-375-1398 권영로

문의 055-375-1398.010-2563-1398
지 응 합 장

올바른 명리이론 개강 안내

四柱(명리)에서.
가족(육친)이 구성되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육신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는데 인생사와 직업을 알 수 있던가요?
잘못되어 있는 지지 장간으로 상세한 통변을 할 수 있던가요?
각 天干의 특성을 모르면서 日干의 성격과 특성을 알 수 있던가요?
12운성이 올바르지 않은데 신강 · 신약과 흥망성쇠를 알 수 있던가요?
음양, 5행, 상생 · 상극, 용신, 격국, 殺이 학문적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대운은 세월의 흐름인데 逆順의 대운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까?
일춘시간부터 년과 월은 바꾸면서 왜 日辰은 그대로 사용 하나요?
일입시간과 일입시간부터 子時가 된다는 말 들어 보셨나요?
아직도 모든 古書가 올바르다고 굳게 맹세하고 맹신하고 있습니까?
대학원을 졸업 하였는데도 여러 가지 왜 답이 없는가를 고민하지 않았는가요?
비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배웠는데도 답이 있던가요?
이론의 의문점에 질문을 할 수 있던가요?
실전(통변) 강의를 계속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있던가요.

이제 무조건 신월명리이론 입니다.

신월명리이론은 이미 명리이론의 정석이 되어 있습니다.
① 학문적이므로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② 통변 방법을 manual화하여 누구가 똑같은 답을 낼 수 있고
③ 이론을 배우고 난 뒤 알고 싶은 四柱의 통변도 계속 들을 수 있으며
④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이론입니다.
인생의 이모작은 신월명리학회에서

■ 책 : 명리개벽, 절기력 I, 일주론, 음양5행과상생상극이죽어야 명리가 산다.

“자신 만만한 이론”
“세계 명리이론의 정석이 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명리이론의 학문화를 이룩한 이론”

■ 개강일자 : 2017년 5월 10일(수요일) 오후 2시, 오후 6시
■ 강의장소 : 신월명리학회 서울지회
(전철2호선 신림역 7번출구, 르네상스호텔 앞 군산아구찜 건물 303호)

신월명리학회 서울지회 02)882-4684
www.modubom.com